

지역 소식통

정읍시, 구제역 예방 위해 10월 29일까지 일제 접종

정읍시가 구제역 유입 방지와 축산 청정 정읍 유지를 위해 26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지역 내 소·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을 일제 접종한다.

구제역은 소·돼지·염소·사슴 등 우제류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높은 치사율의 국가 재난형 전염병이다.

시는 전염성이 높은 구제역 바이러스 때문에 지역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매년 4월과 10월 정기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접종 대상은 소 10만15천 마리, 염소 7천9백 마리다. 소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와 염소 전농가는 시가 백신을 일괄 구매(100% 보조)해 공수의를 동원해 접종을 지원한다.

전업 규모 이상 농가는 백신을 50% 보조받아 지역 축협에서 구입 후 자체적으로 일제 접종하면 된다. 구제역 백신접종을 마치고 1개월 이후부터는 백신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나터링 검사를 시행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제2차 스카우트 지도자 430여명 배출

부안군이 2023년에 개최되는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 지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간 출포만갯벌생태공원에서 스카우트 지도자훈련 초·중급과정을 개최했다.

이번 지도자훈련은 부안군민, 세계잼버리조직위원회 직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텐트 숙박, 자체취사 등 세계스카우트연맹 지도자교육 지침과 함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소그룹 반활동 등 철저한 방역 속에서 진행되었다.

지도자 훈련 강사로 참여한 한 군민은 "부안군의 스카우트 지도자 훈련을 통해 지도자가 되어 이번 훈련에 강사로 참여해 매우 뜻 깊었다"며 "내년 부안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세계잼버리를 알리는데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발전 한마음 한 뜻 협력

군, 민주 부안지역위와 당정협의회... 국가예산 확보 · 지역현안 해결 힘 모으기로

부안군과 더불어민주당 부안지역위원회는 지난 23일 부안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 하반기 당정협의회를 열고 2023년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서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권익현 군수와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김정기·김습지 전북도의원, 김광수 부안군의회의장 및 부안군의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안지역위원회 당직자, 부안군청 간부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2023년 국가예산 확보 등에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다짐했다.

군은 2023년도 국가예산 건의사업으로 생태정원과 함께하는 갯벌치유센터 조성, 국도 30호선(석포~운호) 확 · 포장, 출포지구 배수개선 사업 등 6개 사업을 건의하며 국회단체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권익현 군수는 "부안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원팀이 돼 주시길



부안군과 더불어민주당 부안지역위원회는 지난 23일 부안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 하반기 당정협의회를 열고 2023년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서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바라다"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단체에서의 역할 분담과 공동 대응으로 군에 필요한 국가예산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원택 국회의원은 "당면한 부안의 현안사업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모든 열정을 쏟겠다"며 "부안의 미래를 더욱 키우고 희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제9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2개 마을 수상

부안군, '입선' 계화면 양지마을 · '동상' 상서면 우덕마을... 상장 · 시상금 · 마을현판 부상 주어져

부안군은 지난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최한 제9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 참가해 2개 마을이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상으로는 상장과 시상금, 마을현판이 부상으로 주어지게 됐다.

마을만들기 소득·체험 우수사례에서 입선을 수상한 계화면 양지마을은 마을공동 작업장으로 누룽지공장을 운영하며 마을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청년층의 도시 이주, 고령화 등으로 농촌마을의 어려운 모습과 마을주민들이 모여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퍼포

먼스로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농촌빈집·유휴시설 활용 우수사례에서 동상을 수상한 상서면 우덕마을(우덕기록문화관)은 지난해 오랜기간 방치된 옛 경로당을 마을기록관으로 조성했다. 마을에 있는 다양한 기록물을 보존·전시하여 과거와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이 기록관은 마을주민들이 손수 힘을 합쳐 지금의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또한, 메타포트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에서도 마을기록관에 실재로 온 것처럼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콘테스트에서 부안군이 2개 마을이나 우수한 성적을 거둔 데에는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인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컸다.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분야별 우수사례를 적절하게 찾아내 마을 주민들과 함께 콘테스트에 참여했으며, 그 결과 전북 예선에서 4개 마을이 수상했고, 이번 전국 콘테스트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는데 크게 기여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병바위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기념행사

고창군과 문화재청이 23일 오후 고창군 아산면 '고창 병바위 일원'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을 기념하기 위한 축하행사를 열었다.

기념행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 문화재청 황권순 문화재보호국장, 윤준병 국회의원, 이산초등학교 학생들과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병바위는 1억5000만년 전 용암과 응회암이 침식·풍화되어 얻어진 호리

병 또는 사람 얼굴 모양 등으로 보이는 독특한 생김새의 바위(높이 35m 정도)다.

전설로 '진침잡에서 몹시 취한 신선(神仙)이 쓰러지면서 소변(小便: 작은 밤상)을 걸러쳐자 술병이 굴러 떨어져 인천강가에 거꾸로 꽂힌 것이 병바위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고창 병바위 일원은 지질학적 가치와 경관적으로 인상적이면서 흥미

로운 조망 대상이다. 인천강 등 주변 과도 잘 어울려 경관적 가치도 탁월하다. 또 두암초당에서의 강화 관련 다양한 문헌과 시·글·그림 등이 확인되는 등 역사·문화적 가치도 뛰어나 지난해 12월8일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됐다.

행사는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자연유산 전문기사의 강연, 고창 병바위 일원 영상 상영 등이 진행됐다.

/고창=김영식기자



축성 605주년을 기념하는 '제2회 무장읍성 축제'가 23일 '과거와 현대를 아우르다'를 주제로 역사와 문화의 산실인 무장읍성 일원에서 열렸다

'과거와 현대를 아우르다'

축성 605주년 '제2회 무장읍성 축제' 성황리 열려

축성 605주년을 기념하는 제2회 무장읍성 축제가 23일 '과거와 현대를 아우르다'를 주제로 역사와 문화의 산실인 무장읍성 일원에서 열렸다.

축제는 성황제를 시작으로, 현감부임 행사, 합어식 경로(孝) 위안잔치, 연예인 초청 신나는 예술버스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했다. 또 축성 605주년을 기념해 나비 605마리를 날리는 퍼포먼스로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100년 만에 연꽃 씨앗이 발아한 무장읍성 연꽃에선 대형 연등이 등장했다. 축제에 참여한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소원지를 써서 띄우면서 축성 605주년의 위상에 맞게 지속적인 축제로 발전

하기를 기원했다. 무장읍성 축제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주민 주도형 축제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사)무장읍성보존회 김기욱 회장은 "지역민들이 준비한 축제라서 더욱 빛났다"며 "무장읍성의 역사성과 축제의 독창성을 지역민들과 함께 살려 앞으로 더욱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 "무장읍성민들이 함께 준비한 축제라서 그런지 다른 큰 축제보다 더욱 의미가 크다"면서 "축제를 통해 무장읍성의 역사성을 널리 알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 마을기자단 양성 교육

정읍지역 마을 곳곳의 다양한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해 줄 10인의 마을기자가 탄생했다.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이사장 이봉열)는 지난 7월 5일부터 9월 21일까지 마을 활동과 기자단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활용기 양성 교육을 추진했다.

미디어 활용기 양성 교육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마을의 다양한 이야기를 취재·보도함으로써 마을 홍보와 대·내외 소통의 역할을 담당할 기자단을 양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은 총 7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기자단 활동에 필요한 미디어 이론교육과 마을신문 기획 및 기사 작성, 사진 촬영 기술, SNS 활용법과 카드 뉴스 제작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 광주시청지자체미디어센터를 견학해 일상적으로 접하는 뉴스나 라디오 방



송물에 대한 제작과정을 살펴보고, 방송 장비를 활용한 뉴스 제작에도 직접 참여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교육을 통해 기자단이 수혜에 아한 실무적 지식과 마을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배웠으며, 이를 바탕으로 마을 소식지 '참고'를 제작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은 "우리 마을의 무궁무진한 자원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알람이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